

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

-북미/대양주분과-

작성부서 :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작성일 : 2014. 11. 7
 작성자 : 김종혁 전문연구원
 전화 : 02-3460-1193
 연락처 : jhkim@kiep.go.kr

I. 개 요

1. 일시 : 2014. 10. 30(목) 15:00~17:00
2. 장소 : KIEP 11층 회의실
3. 발표자(1) : 나석권 주미한국대사관(뉴욕) 재경관
4. 제 목
 - 미국 금융계의 혁신 현황과 과제

5. 참석자(총 10명)

나석권 재경관	(주미한국대사관)
최윤식 연구위원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권율 팀장	(KIEP 국제협력정책실)
권기수 팀장	(KIEP 구미·유라시아실)
윤여준 박사	(KIEP 구미·유라시아실)
김진오 전문연구원	(KIEP 구미·유라시아실)
김종혁 전문연구원	(KIEP 구미·유라시아실)
고희채 전문연구원	(KIEP 구미·유라시아실)
박미숙 전문연구원	(KIEP 구미·유라시아실)
이시은 연구원	(KIEP 구미·유라시아실)

II. 주요 발표 내용

- (혁신의 의미) 혁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장의 촉매제’(catalyst to growth)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혁신이 촉매제를 넘어 성장의 핵심(main stream)이 되고 있음.
 - 혁신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경제학자로는 슈페터가 있으며, 그는 ‘끊임없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o 자본주의에 관한 본질적인 특징(essential fact)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있다고 분석
 - OECD의 경우 혁신을 ‘신지식의 상업화’로 정의하고 있음.
 - 혁신의 형태와 시기 등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임.
 - 현재 우리나라는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가능곡선의 곡선상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되나, 생산가능곡선 자체를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함.
- (혁신의 성공 요인)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그 아이디어가 기존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미국의 경우 금융업, 부동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로버트 인디애나의 대표작 ‘LOVE’에 대해서는 보는 이들이 강렬한 인상을 느끼지만 뉴욕 맨해튼에 있는 ‘HOPE’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LOVE’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임.

- o 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함.
 - 뉴욕의 Sky Garage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해당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임.
 - o 뉴욕의 자산가들은 고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고급 자동차에 대한 애착도 많으나, 주차난으로 자신의 차를 발레파킹을 통해서만 주차하고 인도받을 수밖에 없었음.
 - o 따라서 뉴욕의 주차난과 자산가들이 자신의 차를 항상 곁에 두고 관리하고 싶다는 점에 착안하여 Sky Garage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음.
- (은행업계 혁신 사례) Simple Bank는 기존 은행의 서비스에 대해 실망감을 느껴 보다 고객중심의 은행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시작되었음.
-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자신의 모든 재무상황을 즉시 스마트기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o Safe-to-Spend 기능을 통해 예상소요나 임박한 지불소요 등을 제외한 ‘실제 사용가능금액(available balance)’을 보여줌으로써 고객지향적인 개인맞춤형 금고역할을 수행
 - 2년 남짓한 신생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말까지 1,810만 달러의 자금 모집, 11만, 4,000명의 고객확보, 17억 달러(2014년 기준) 규모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o 2009년 처음 설립되었으며 2012년 7월 본격적으로 은행고객 모집을 개시하였음.

- Simple Bank의 사례는 한국 금융업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o 수수료 발굴에만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 o 지점증설을 통한 수익창출 모형에서 벗어나 스마트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
 - o Safe-to-Spend와 같은 고객지향적 재무분석 기능의 적극 도입을 검토할 필요
 - o 스페인 BBVA 은행의 Simple Bank 인수 사례와 같이 우리 금융업계도 디지털 은행을 통한 대외진출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증권업계 혁신 사례) 사모펀드인 Blackstone은 개인투자자의 영역이었던 주택임대 사업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혁신을 이룰 수 있었음.
- Blackstone은 2008년 주택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다량의 주택을 구입하고, 레노베이션을 통해 주택의 가치를 높인 후 이를 다시 되파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o 그 과정에서 모기지 비용과 레노베이션 비용은 월가의 방식(4.8억 달러의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음.
 - Blackstone의 House Rental Project는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기업이 집을 산 것에 불과했지만 거시적으로는 미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매개체로 작용하였음.
 - o Blackstone은 House Rental Project로 총 86억 달러 규모의 주택을 구입(44,000채)하였으며, 그 결과 2년 만에 LA, 라스베이거스 지역 주택가격은 20% 상승하였음.

- (보험업계 혁신 사례)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은 전통 보험시장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함으로써 보험사의 추가 담보력을 확대할 수 있음.
 - 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금과 발생된 수익금을 재보험사에 지급하고, 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대재해채권의 활성화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투자위험 분산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장기채권 시장 및 자본시장 육성에 기여
- 재해발생으로 인한 정부의 피해복구비 지출부담 완화

III. 주요 토론 내용

- (개방적 혁신의 중요성 부각) 스마트화와 컨버전스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경계가 모호해 짐에 따라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음.
 - 단위당 R&D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줄어들고 있어 내부 조직 중심의 R&D 투자 효율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구글은 2001년 이후 130 여개의 회사를 인수합병(M&A) 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 개방형 혁신을 단순히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로 그 활용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음.

□ (혁신을 위한 국내 환경 조정의 필요성) 미국의 사례들은 혁신을 위한 제도와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어 성공할 수 있었음.

- 미국은 규제를 통해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함.
- Blackstone의 사례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주택가격을 올린다는 비판이 있으나, 주택을 구입을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시각이 우세
- o 특히 미국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그것이 자본이든 주택재고이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이 강함.

□ (미국 제조업 부문의 혁신 사례) 테슬라社의 전기자동차가 최근 미국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전기자동차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보다 앞선 기술을 경쟁업체에 비해 빨리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임.

- 가속능력이 탁월한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를 모두 뛰어넘는 주행성능을 보유할 수 있었음.
- o 배터리를 사용하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무게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압도적인 가속능력을 나타냄.
- 전기자동차 상용화의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주행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기술력을 확보하였음.
- o 주행거리를 360km~450km 수준으로 늘려 장거리 운전도 가능
- 또한 자동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최초로 상용화함으로써 테슬라社의 기술력을 재확인

- 자동 차선 변경, 자동 주차 등 소극적인 자동운전 편의기능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동주행도 가능

□ (정책적 시사점) 한국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개방형 혁신을 통해 이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조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성장 동력이 필요함.

- 한국의 경우 산업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양적인 생산요소 투입 확대, 비용 절감에 기반을 둔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고급 기술보유자 확보, 스마트 제조업, 전략적인 R&D 투자를 통해 효율성 기반(efficiency-oriented)의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 중심의 혁신이라는 제한된 시각, 조직 내부의 개방적 문화나 마인드 부족,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효율성 중심의 단기적 시각, 내부에서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 부족 등은 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로버트 인디애나의 'LOVE'의 사례, Sky Garage 사례, 은행·증권·보험 분야의 사례 등은 혁신이 반드시 기술 중심일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젊은이들은 획일적인 교육과 성공기준을 강요받고 있어, 창조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기 힘든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성장과정에서부터 창업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